

광주동부교육청, '2020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기초연수'

자원봉사자 18명 '학생상담자원봉사제 기초연수' 수료

집단상담 운영에 필요한 내용 참여 중심 연수로 익혀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2020년 학생상담자원봉사제 기초연수'를 지난 22일 알차게 마무리했다.

26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생상담자원봉사제 기초연수'는 신규 및 기존 상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2월 1주일 동안 집중 출석연수로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신규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격주로 총 10주 동안 2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기초연수 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연수생 및 강사, 운영진 모두가 자가진단·발열 체크·마스크 착용·손소독제 사용·수시 환기·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실천했다.

신규 자원봉사자 18명은 '2020년 학생상담자원봉사제 기초연수'를 무사히 수료했고, 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이수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기초연수는 ▲실천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아이들과의 행복한 소통법 ▲상담자의 태도와 윤리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마음을 여는 미술치료, 그림으로 보는 마음이야기, 함께해요 미술치료 ▲어울림 프로그램의 실제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상담자원봉사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상담자로서 집단상담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참여 중심 연수로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기초연수 과정을 수료한 상담자원봉사자들은 기존 100여 명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함께 월 1회 보수교육과 심화연수를 통해 상담 역량을 키워 학교 집단상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이번 기초연수를 무사히 마친 상담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며 "향후 연수에도 적극 참여해 한 아이도 놓치지 말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상담에 힘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약 체결

교육연수 사업 강화·교육 생산성 향상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최근 대학 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한국생산성본부(KPC)와 대학발전 및 특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연수사업 강화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신화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 한상룡 호남·제주지역본부장, 조남혁 대학컨설팅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자원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컨설팅 및 교육연수 사업을 강화하고, 지역혁신 기여 프로젝트 공동참여 및 임직원·대학생 대상 기본소양 향상 특강을 추진해 대학의 교육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결

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순천대학교와 한국생산성본부는 ▲대면 및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교육 활동 추진 ▲일자리 매칭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한 취업 협력 ▲대학 IR(Institutional Research) 관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외국인 유학생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협력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최초 교육·컨설팅 전문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리 대학이 지역 중심 국립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로서 대학의 교육적 존재 가치와 생산성 향상을 달성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은 "순천대가 사업과 교육을 연계해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생산성본부는 1957년에 국가·기업 및 개인의 생산성 향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교육·컨설팅 전문 기관으로 생산성연구소, 교육훈련, 컨설팅, 지수조사발표, 자격인증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추진 방안'을 주제로 지역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등을 다룬 강연에 나서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여 향후 대학교육 생산성 향상 및 지역협력을 위한 양질의 컨설팅과 특강 제공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Wee센터 아동학대·청소년 성문제 지원"

전남교육청, Wee센터 역량강화 연수 실시

전라남도교육청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 7월 23일, 24일 동부권과 서부권 두권역을 나눠 Wee센터 업무담당자 96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부 '2013~2017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대책추진위원회 심의 현황'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심의 건수는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수는 국립나주병원 전문의와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아동기 트라우마와 성문제 이해, 청소년 성문제 상담과 실제, 표현 예술 치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Wee센터 연수 대상자들은 이날 연수

에서 청소년의 성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및 다각적 이해하며,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담당자들에게 문제 유형에 따른 전문지식과 상담기술을 향상시키고, 위기상황에 대한 상담과 관련기관의 연계·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남교육청은 2013년부터 국립나주병원과 협약을 맺은 후 Wee센터 전문상담 인력의 역량강화 연수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특히, 전문상담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립나주병원 윤보현원장은 "위(Wee)프로젝트 초창기부터 교육청과 인연을 맺어 상생발전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빨리 변화시키기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정환 기자

화순교육청 '과정중심·성장 발달 돕는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교사의 전문성 신장 적극적인 지원 목적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7월 23일 중학생들의 과정중심과 학생성장 발달을 돕는 학생평가 현장지원단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연수를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학생평가 현장지원단은 학교현장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 실태를 파악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적극적인 지원할 목적으로 수석교사 및 교사 7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업과 평가 혁신인 과정중심, 학생성장 발달을 돕는 학생평가를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자체 연수를 운영했다.

이날 자체 연수는 현장지원단을 다년간 활동했던 화순제일중 이미자 수석교사의 전라남도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과정중심평가의 이해,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의 변화 사항과 모니터링을 위한 학업성적관리규정 준수, 학생평가 계획의 적정성, 성취평가제 운영 타당성, 서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 있었고 지원단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 평가계획을 분석하고 서로 공유하며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지원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관내 중학교 10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지필평가, 수행평가 계획 등을 9월 말까지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모니터링의 결과를 가지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컨설팅 장학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지원단은 각각 교과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학생활동중심 수업안과 학생활동에 따른 학생평가를 포함한 과정중심평가안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